

결혼 이민여성 농촌 대체 인력된다

농협 전남본부, 1:1 교육 실시
이민여성농업인 수강생 145명
SNS 통한 농산물 판매 등 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이민여성 농업인 맞춤 농업교육' 간담회를 열고 이민여성 농업인과 후견인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본부 제공>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여성에게 일대일 농업교육을 펼쳐 총 681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이 교육은 이민 여성이 안정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0여 명의 농촌 결혼 이민여성에게 일대일 농업교육을 펼쳐 총 681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이 교육은 이민 여성이 안정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귀화자는 전체 인구(187만명)의 0.6% 정도인 1만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결혼 이민자·귀화자 비율은 전국의 3.7%로 경기·서울·부산 등에 이어 주요 시도 중 8번째로 많다.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귀화자 인구는 최근 6년간 15.7%포인트 증가했고 여수(11.1%), 목포(10.0%), 순천(9.8%), 광양(7.9%) 등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본부는 지난 18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분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이민여성 농업인 일대일 맞춤 농업교육' 후견인 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결혼이민여성 145명과 이들을 '일대일'로 가르칠 전문여성 농업인 139명 등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이 교육을 통해서 총 681명의 수강자가 나왔다.

교육은 7개월 동안 수강생 또는 후견인의 농장에서 3시간씩 20차례 열린다. 이들은 '멘토' '멘티'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기법, 농업일지 작성방법 등 농업 이론과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절문화 등 한국문화도 배웠다.

참가자들은 발농사(40명) 교육을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했으며, 그 뒤로는 벼농사(70명), 과수(28명), 기타품목(7명) 등을 배우길 희망했다.

교육은 7개월 동안 수강생 또는 후견인의 농장에서 3시간씩 20차례 열린다. 이들은 '멘토' '멘티'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기법, 농업일지 작성방법 등 농업 이론과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절문화 등 한국문화도 배웠다.

참가자들은 발농사(40명) 교육을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했으며, 그 뒤로는 벼농사(70명), 과수(28명), 기타품목(7명) 등을 배우길 희망했다.

이해하는 시간과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집합교육도 마련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다문화여성인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으로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이민여성 농업인 일대일 맞춤 농업교육'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1년 넘게 전남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민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289-71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격 폭락 부른 '양파 풍년'

전남 재배면적 25%↓에도 생산량 4%↑...kg당 도매가 337원 하락

광주·전남 이마트 소비 촉진 행사

올해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정부의 물량예측 실패와 좋은 날씨여건 등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9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양파 생산량은 58만1958t으로 지난해(55만8659t)보다 4.2% 늘었다.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8467ha로 지난해 1만327ha 보다 25.3% 줄었다. 하지만 10a(1000㎡) 당 생산량은 4932kg에서 6873kg으로 39.4%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파 도매가격은 이달 kg당 401원을 기록해 지난해 738원보다 크게 하락했다. 2년 전 1171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양파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전체 양파 생산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9.5% 감소한 2321t이었고 재배면적은 48.6% 작아진 33ha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이마트 8곳 전점은 오는 24일까지 무안 양파 1.5kg 한 방을 1780원에 판매하며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다.

양파 생산량과 함께 발표된 마늘 생산량을 보면 광주는 지난해보다 53.4% 늘어난 597t, 전남은 22.6% 증가한 7만3674t으로 집계됐다.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5803ha로 3.8% 작아졌지만, 광주는 36ha에서 44ha로 24.3% 커졌다.

19일 기준으로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 깬마늘(상품) 1kg은 평균 가격(7567원) 보다 20.7% 낮은 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보리 생산량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44.8%) 차지하는 전남은 올해 생산량이 49.5% 많아진 8만9617t을 기록했고, 광주는 무려 179.7% 급증한 2461t을 보였다. 광주 보리 재배면적은 89.6% 커진 570ha, 전남은 3.1% 작아진 2만126ha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가서 키우는 닭, 역대 최다

광주·전남 전년비 13.1% 상승

중복(22일)을 앞두고 광주·전남 농가가 지난해보다 육계 사육을 13.1%(302만 마리) 늘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사육 중인 육계는 광주 32만3000 마리, 전남 2577만 마리 등 총 2610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2308만 마리보다 13.1% 늘고, 전분기보다 27.6%(565만 마리) 늘어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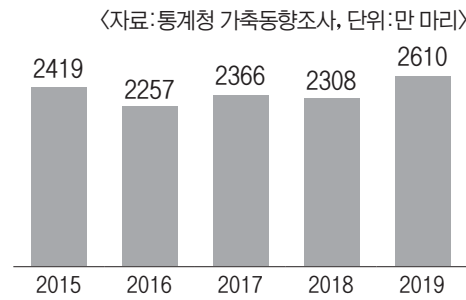
전국 사육 육계 역시 1억2158만8000 마리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닭고기 생산이 목적인 육계의 올 2분기 마릿수는 1983년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육계 뿐만 아니라 올해 한·육우와 돼지 사육도 크게 올랐다.

광주·전남 2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52만5677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3453 마리) 보다 6.5%(3만2224 마리) 늘었다.

전국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19만4000 마리로 1년 전보다 2.5% 늘었고, 이 수치 역시

■ 광주·전남 2분기 육계 생산량 추이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가 번식 사육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한우 암송아지 1마리 가격은 지난해 3~5월 270만8000원이었지만 올해 3~5월에는 293만7000원으로 올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길러진 돼지도 114만2295 마리로 지난해 110만5143 마리 3.4%(3만 7152 마리) 증가했다. 전국 돼지 사육 마릿수(1131만7000 마리) 역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는데, 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돼지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육을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한국은행 0.25%p 금리 인하...추가 인하 시사
한일 분쟁 심화에 불확실성 증대·장기화 우려
현금비중 유지하며 자동차·통신장비 등 관심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당초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인한 후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재산업 수출규제 확대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확대됐고 미중 무역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하면서 불확실성 증대와 장기화를 우려했다. 또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연내 추가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내 증권시장은 금리인하에 환호하기 보다는 한일갈등 분쟁심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당일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까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가운데 추가규제조치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7월 초 일본수출규제 발표 직후 전반적인 하락 충격에서 지난주는 일본규제 관련주 중 규제가 따른 피해주보다 정부지원 가능성 및 국산화기대감으로 불확실, 정밀기계, 수소차, 첨단 자동차부품 등 일본산 제품에 대체 가능한 기업으로 순환매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본의 추가제재로 글로벌 분업체계가 흔들리며 미국과 중국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양국의 적극적인 개입가능성이 거론됐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모처럼 각각 1.35%와 1.34% 동반 상승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주에도 일본수출규제 관련이슈에 시장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참의원선거,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일반 수출규제 논의, 24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일 등이 있다. 참의원선거 결과와 국제사회 여론과 일본의 대응강도에 따라 지수의 방향성과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통상적으로 3주 뒤인 8월 중순부터 규제가 예상되며 반도체부품, 수소차, 기계업종 등 관련소재 약 857개 품목에 대해 각각 수출허가를 취득하도록 변경하거나 캐치업규제(리스트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적용도 가능해진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정부가 무리하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신속히 제외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주 금요일 코스피지수에서 6월27일 이후 16영업일만에 외국인 기관은 1000억이 넘는 동반순매수를 보였다. 수출규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화학, 운수장비, 금융 등 서로 비슷한 업종을 순매수 했다. 국내증시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증시와 달리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하락한 상황이다. 만약 일본이 참의원선거 이후 수출규제 완화를 보인다면 수급개선과 더불어 이번주에 코스피지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저점 확인과정도 진행될 수도 있다.

이번주에도 여전히 중장기세 흐름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는 일본 수출규제관련 수혜주에 변동성을 활용한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일정 현금비중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자동차, 2차전지, 통신장비, 증권주에 관심이 쏠려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성광에너지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장관, 4개 단체(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력함에 경쟁 노력